

부탁

김수영

자라나는 죽순 모양으로
부탁만이 늘어간다

귀치않은 부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으로
연명을 하고 보니 거절할 수도 없는

캄캄한 사무실 한복판에서
나는 눈이 먼 암소나 다름없이 선량한데
이 공간의 넓이를 가리키면서
한꺼번에 구겨지자 없어지는 벼락과 천둥
이것이 또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는지

여미지 못하는 생각 위에
여밀 수 없는 부탁이여
차라리 죽순같이 자라는 대로 맡겨 두련다

일찍이 현실의 출발을 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며
오늘 밤도 보아야 할 죽순의 거치러운 꿈은
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

만만치 않은 부탁
내가 너의 머리 위에
너를 대신하여
벼락과 천둥을 때리는 날까지
터전이 없으면 나의 머리 위에라도
잠시 이고 다니며 길러야 할
너는 불행하기 짝이 없는 죽순이다

유일한 시간을 연상시키는
만만하지 않은 부탁과 죽순이 자라노니라